



# 귀찮아서 버린 음료 한 모금, 재활용률 떨어뜨리는 숨은 주범

악취는 줄이고 소각 효율은 높이고! 캠퍼스 곳곳 '음료 비움통' 시범 운영

본교 캠퍼스 내 일반 쓰레기통에는 음료가 남은 일회용 컵이 그대로 버려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액체가 남은 상태로 배출된 쓰레기는 미관 문제를 넘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측면에서 여러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카페 음료나 탄산음료처럼 수분과 당분이 많은 폐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와 위생 문제를 키우고, 처리 과정 전반의 환경 부담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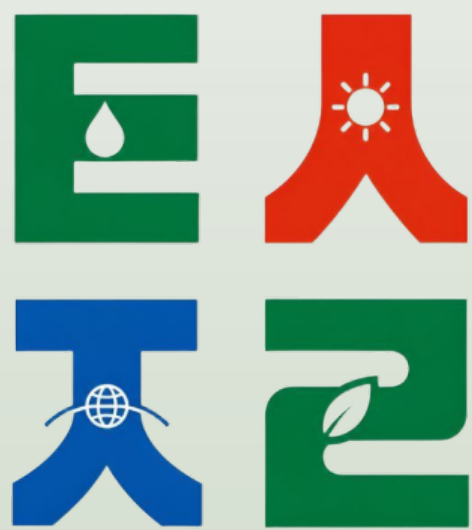
액체가 포함된 일반쓰레기는 수거·운반 단계에서 누수와 침출수를 발생 시킨다. 종량제 봉투 안에서 새어나온 커피와 음료는 바닥과 수거차량 내부를 오염시키고, 여름철에는 강한 악취와 초파리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침출수는 별도의 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는 오염수로 분류되며, 그만큼 추가적인 에너지와 비용이 소요된다. 더불어 남은 음료는 소각 단계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린다.



수분이 많은 폐기물은 먼저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상당한 열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건조 단계가 전체 소각 에너지 소비의 60~70%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탄소중립 서포터즈**

**제7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생회**

이에 탄소중립 서포터즈는 제7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생회와 협력하여 석원경상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분리배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유동인구가 많은 층과 동선을 중심으로 음료 비움통을 배치하고, 기름기 유무에 따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를 제작·부착하였다.

특히, 석원경상관을 이용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고려해 한글 안내문 하단에 중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였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홍준성 학생회장은 “이번 시범 운영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자, 캠퍼스 구성원들과 함께 탄소중립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